Morning Meeting Notes

2025-10-24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LG(BUY/96,000원) 최근 주가 호조. 배당 안정성과 배당성향 추이도 주목
[경제] 10월 금통위 코멘트 - 올해는 아니어도 인하 사이클은 지속?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 간밤 미-중 갈등 재점화에도,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해 3,900pt를 돌파했지만 저항 확인하며 하락. 트럼프가 푸틴과의 만남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3분기 실적 호조로 전력 관련주가 급등. 반면, 전일 미국 AI 관련주 약세로 대형 반도체주에 매물 출회되며 지수는 하락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확정지으면서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의 요인이었던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고, 이에 투심 호조. 업종별로는 에너지, 산업, 소재, 기술 섹터 상승. 특징 종목으론 아메리칸항공이 견조한 3분기 실적 발표 및 4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며 5% 이상 상승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 국고채는 10월 금통위와 외국인 강한 매도세 소화하며 약세 마감. 10월 금통위에서 강한 매파적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으나, 외국인이 3년 국채 선물을 2만7천여 계약 넘게 순매도하며 약세 주도

미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 9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둔 경계감 속,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음.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9.8원 상승한 1,439.6원에 마감.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CNN 인터뷰 여파 및 엔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 발언하였고, 이에 관세 및 대미투자 불확실성 상승

달러인덱스는 98.94로 소폭 상승. 달러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이에 연동되어 강세 양상

Trump watch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 30일 시진핑 주석 회담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30일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 또한 29일에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
한편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푸틴의 정상회담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갈수록 실망하고 있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발언

New Publications

[음식료](Overweight) 일본 음식료 기업 탐방기(2025-10-17)
[의료기기](Overweight) Less Pain More Gain - 미용시술의 대중화(2025-10-15)
[반도체](Overweight) Agentic AI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2025-09-30)
[게임/엔터](Overweight) 소프트파워 한일전(2025-09-30)
[전기전자/디스플레이](Overweight) 스마트 글래스, AI를 달고 비상(飛上)(2025-09-30)
[미국주식] 2025 美 외식 산업 - 'Fast'는 속도, 'Casual'은 전략(2025-09-26)
[2차전지] ESS 그리고 Tesla(2025-09-24)
[중국] 중국 상해, 심천, 광저우 탐방기 -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의 미래를 묻다"(2025-09-19)
[제약/바이오] 합성 치사와 저분자 항암제 - 어느 새부터 항체는 안 멋져(2025-09-15)
[퀀트] Decode the QR Code: 순환매 장세 + 금리 인하 사이클의 투자 Code(2025-09-04)

Rating, Target Price Changes

LG	BUY	86,000 원 ▷	BUY	96,000 원	(2025-10-24)
LS ELECTRIC	BUY	350,000 원 ▷	BUY	370,000 원	(2025-10-23)
테크윙	BUY	70,000 원 ▷	BUY	90,000 원	(2025-10-22)
한국앤컴퍼니	BUY	20,000 원 ▷	BUY	27,000 원	(2025-10-21)
미래에셋증권	BUY	20,000 원 ▷	BUY	23,000 원	(2025-10-21)
올릭스	INITIATION	▷	BUY	125,000 원	(2025-10-21)
삼성전기	BUY	190,000 원 ▷	BUY	240,000 원	(2025-10-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BUY	86,000 원 ▷	BUY	110,000 원	(2025-10-20)
덕산네오룩스	BUY	53,500 원 ▷	BUY	65,000 원	(2025-10-20)
LG전자	BUY	90,000 원 ▷	BUY	110,000 원	(2025-10-20)
NH투자증권	M.PERFORM	23,000 원 ▷	BUY	24,000 원	(2025-10-20)
농심	BUY	520,000 원 ▷	BUY	540,000 원	(2025-10-17)
한국금융지주	BUY	186,000 원 ▷	BUY	202,000 원	(2025-10-16)

외국인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한화오션	84,205
현대로템	78,6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8,006
삼성전기	33,143
LS ELECTRIC	15,763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SK하이닉스	73,260
LS ELECTRIC	65,687
하이브	51,300
포스코인터내셔널	43,492
삼성전기	34,414

외국인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SK하이닉스	-118,383
NAVER	-114,752
삼성전자	-44,997
두산에너빌리티	-36,821
POSCO홀딩스	-33,289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삼성전자	-206,808
NAVER	-127,767
두산에너빌리티	-51,366
셀트리온	-43,873
삼성전자우	-35,883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3,845.56	-0.98	+10.79
대형주	3,956.10	-1.04	+12.37
중형주	3,674.55	-0.65	+2.39
소형주	2,475.09	-0.41	-0.17
KOSDAQ	872.03	-0.81	+2.29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769	-7,011	7,633
누적순매수(D-20)	-70,237	51,841	14,973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237,080	234,222	255,421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92.73	-0.93	+0.40
금융	727.83	-1.29	+4.41
운수장비	4,816.61	-0.33	+9.87
유통	443.69	+0.36	+3.48
음식료	4,521.42	-0.32	-3.73
의약품	16,771.63	-1.62	+4.95
전기전자	41,235.81	-0.88	+19.69
철강금속	6,462.41	-0.05	+7.46
화학	4,335.01	-0.63	+11.78
유틸리티	1,284.13	-3.37	+14.68
통신	482.75	-0.81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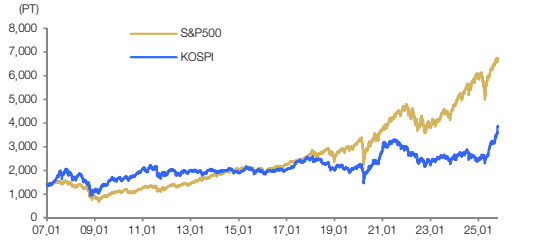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6,738.41	+0.58	+2.02
NASDAQ	22,941.80	+0.89	+2.49
일본	48,641.61	-1.35	+6.31
중국	3,922.41	+0.22	+1.79
독일	24,219.09	+0.28	+2.91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2.61	+3.30	+7.70
국고채 (10년)	2.91	+4.30	+2.70
은행채AAA (3년)	2.79	+3.90	+5.10
미국국채 (2년)	3.49	+4.75	-16.30
미국국채 (10년)	4.00	+5.05	-16.85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439.60	+0.69	+2.78
원/백 엔	943.58	+0.28	+0.95
원/위안	201.81	+0.58	+2.79
달러/유로	1.16	+0.06	-0.41
위안/달러	7.12	-0.05	-0.16
엔/달러	152.57	+0.40	+1.81
Dollar Index	98.94	+0.03	+0.49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61.79	+5.62	-4.91
금 (usd/oz)	4,143.05	+1.91	+9.86
BDI	2,057.00	-1.77	-8.17
천연가스(NYMEX)	3.34	-3.07	+15.15

KOSPI, S&P 추이



본 조사지표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LG (003550)

Analyst 김한이 haneykim@hmsec.com

최근 주가 호조. 배당 안정성과 배당성향 추이도 주목

BUY **TP 9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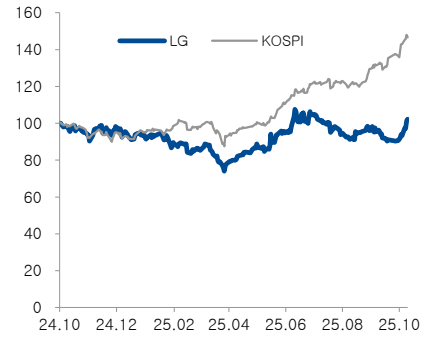
현재주가 (10/23)	80,800원
상승여력	18.8%
시가총액	12,461십억원
발행주식수	154,222천주
자본금/액면가	802십억원/5,00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84,900원/58,500원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19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35.31%
주요주주 지분율	
구광모 외 29인	42.54%

주가상승률	1M	3M	6M
절대주가(%)	7.0	0.9	24.7
상대주가(%p)	-3.0	-16.5	-18.1

* K-IFRS 연결 기준

(단위: 원)	EPS(25F)	EPS(26F)	T/P
Before	8,436	10,049	86,000
After	8,494	10,401	96,000
Consensus	7,398	8,625	92,857
Cons. 차이	14.8%	20.6%	3.4%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투자포인트 및 결론

- 투자의견 BUY 유지, TP 96,000원으로 12% 상향. 최근 LG 주가 10/13 저점 대비 15% 상승하며 눈에 띄는 호조 시현 중
- 최근 자회사 LG화학 지분가치 증가에 따른 NAV 증가와 함께, 꾸준한 배당에 기반한 안정적인 주당배당금과 배당성향 추이도 주목.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하여 관심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 증가한 NAV를 반영하여 TP 상향했으며 기대요인들을 반영하며 상승세 이어가 할인율 축소 나타날 전망

주요이슈 및 실적전망

- LG화학은 10/1 LG엔솔 지분을 활용해 약 2조원 규모의 PRS 계약 체결. 재원 확보를 통한 CAPEX 투자나 주주환원, 재무구조 개선 전망 이외에도 당사의 전망에 따르면 양극재 사업의 반등가능성이나 소재사업 중장기 성장 여력 긍정적. 전일 기준 LG 보유 LG화학 지분가치는 9.6조원, 전체 NAV의 33%이자 상장지분가치 중 가장 비중 높은 자회사로 최근 NAV 증가를 견인. 9월말 상장지분가치 18.1조원, 현재 21.4조원으로 3.3조원 증가, 이중 LG화학 지분가치 증가분이 2.6조원
- 한편 경상이익 기준 별도 배당성향을 60% 이상으로 하는 배당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배당을 지급해 온 점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하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배당기업'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
-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수입이 24A 4,321억원에서 25F 3,893억원으로 10% 감소 예상되지만, 전년도 DPS 3,100원 기준 현재 연간 배당수익률은 3.8%로 양호. 발표된 반기배당 1,000원 제외한 기말배당수익률은 2.6%
- 3Q25F 연결 매출액은 2.0조원(+2.9% YOY), 영업이익 0.40조원(-15% YoY), 지배순익 0.32조원(-14% YoY) 추정. 연결자회사들 전년동기 수준 전망한 가운데 지분법이익 일부 감소 전망을 반영하였으며, 미실현손익 등 상계처리 규모에 따라 지분법이익 추정치 차이 발생 여지 있음

주가전망 및 Valuation

- NAV 29조원. 상장지분가치 21조원으로 비중 74%. TP 9.6만원의 내재 할인율은 48.5%로 LG CNS 상장 이후 역사적 저점 반영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3	7,445	1,589	1,261	1,777	7,958	-36.5	10.8	0.5	7.0	4.9	3.6
2024	7,176	967	575	1,161	3,593	-54.8	20.0	0.4	9.0	2.2	4.3
2025F	8,236	1,646	1,337	1,844	8,494	136.4	9.5	0.5	6.1	4.8	3.9
2026F	9,185	2,113	1,613	2,292	10,401	22.4	7.8	0.4	4.9	5.6	3.9
2027F	10,282	2,567	1,951	2,737	12,588	21.0	6.4	0.4	4.2	6.5	3.9

* K-IFRS 연결 기준

〈그림1〉 연결 실적 추이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F	4Q25F	2023	2024	2025F
연결매출	1,624	1,824	1,944	1,783	1,936	1,798	2,001	2,485	7,445	7,176	8,219
지분법이익	319	123	261	-486	482	93	175	73	899	217	823
화학	49	-103	157	-269	82	-142	39	24	381	-166	4
생활건강	34	32	20	-28	33	10	12	-3	46	58	53
전자	143	114	38	-159	298	137	61	-17	212	135	479
유플러스	88	63	53	-19	60	80	69	79	215	185	289
기타	5	17	-7	-11	9	8	-7	-11	45	4	-1
LG CNS	1,070	1,450	1,438	2,024	1,211	1,460	1,541	2,168	5,605	5,983	6,380
디앤오	77	68	61	79	80	65	62	83	282	284	290
경영개발원	61	72	70	70	66	72	69	68	230	273	276
연결영업이익	423	309	477	-242	638	277	404	335	1,589	922	1,654
지분법이익	319	123	261	-486	482	93	175	73	899	217	823
LG CNS	32	138	143	200	79	141	140	213	464	513	572
디앤오	9	-6	-4	9	10	-11	-4	13	9	8	8
경영개발원	5	3	3	-1	5	4	2	0	9	11	11
순이익	368	290	443	-311	608	244	380	261	1,414	790	1,494
LG CNS	13	102	118	132	57	99	114	143	332	365	414
디앤오	77	19	20	29	28	-8	8	30	87	145	58
경영개발원	5	3	3	0	2	4	2	2	8	11	11
지배지분순익	345	251	370	-392	580	205	319	219	1,261	575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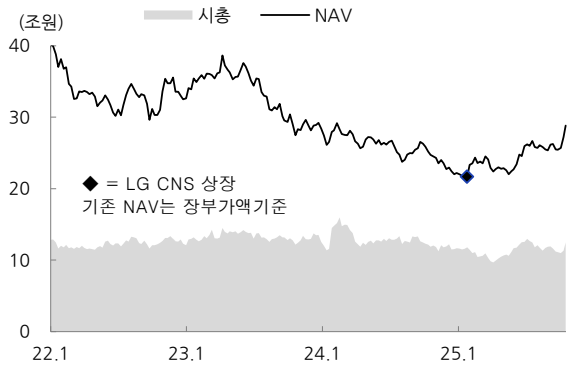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그림2〉 NAV, TP 산출

(십억원, %)	지분율	기업가치	평가금액	비중	비고
영업가치			**4,995**	**17.3**	24A 유입액 10x
브랜드로열티			3,564	12.4	
용역수익			1,431	5.0	
상장자회사			**21,493**	**74.5**	**전일 종가**
LG화학	34.9%	27,496	9,609	33.3	
LG전자	35.1%	14,692	5,180	18.0	
LG생활건강	34.0%	4,338	1,507	5.2	
LG유플러스	37.7%	6,482	2,479	8.6	
LG CNS	45.0%	5,929	2,666	9.2	
HS애드	35.0%	145	51	0.2	
비상장자회사			**1,544**	**5.4**	**반기 공시기준**
디앤오	100.0%		250	0.9	
기타			1,294	4.5	
자기주식	-	-	-	-	**소각 예정, 제외**
순차입금			**-818**	**2.8**	**직전분기 별도**
NAV			28,849	100.0	
목표할인율			48.5%		직전 수준 유지. CNS 상장 이후 할인율 최저점
TP(원)			**9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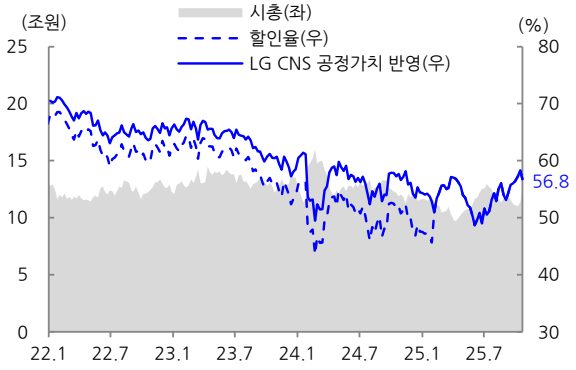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그림3〉 시가총액 vs. NAV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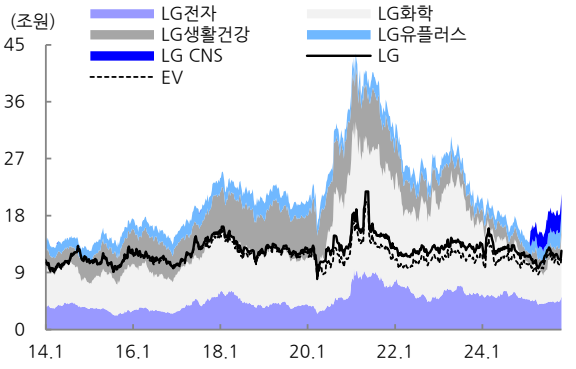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그림4〉 시가총액 vs. 할인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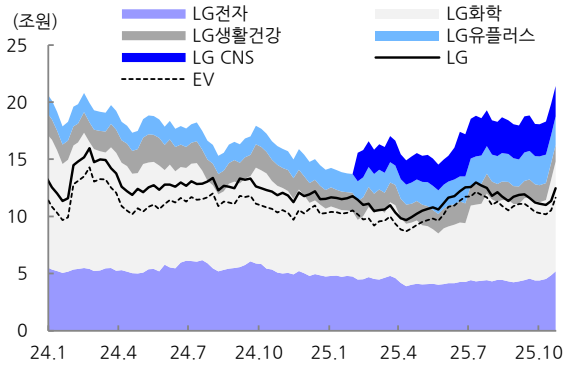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그림5〉 시가총액 vs. NA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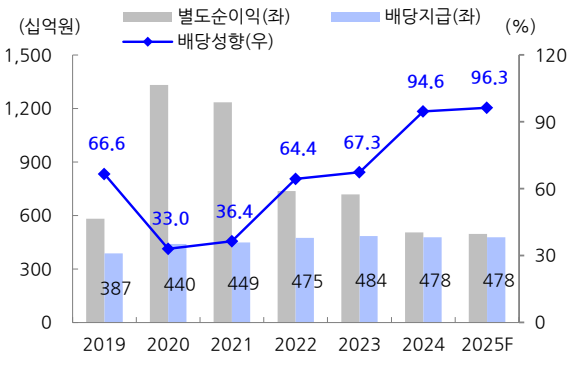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6〉 시가총액 vs. 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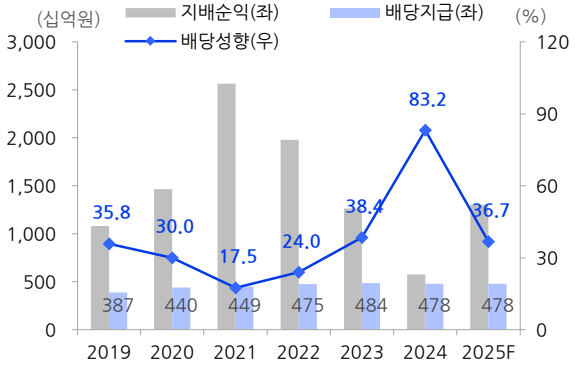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현대차증권

〈그림7〉 배당지급 vs. 별도 배당성향



자료: LG, 현대차증권

〈그림8〉 배당지급 vs. 연결 배당성향



자료: LG, 현대차증권

(단위:십억원)

포괄손익계산서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7,445	7,176	8,236	9,185	10,282
증가율 (%)	3.6	-3.6	14.8	11.5	11.9
매출원가	5,439	5,747	6,096	6,521	7,098
매출원가율 (%)	73.1	80.1	74.0	71.0	69.0
매출총이익	2,006	1,429	2,140	2,664	3,184
매출이익률 (%)	26.9	19.9	26.0	29.0	31.0
증가율 (%)	-14.0	-28.8	49.8	24.5	19.5
판매관리비	417	462	494	551	617
판관비율(%)	5.6	6.4	6.0	6.0	6.0
EBITDA	1,777	1,161	1,844	2,292	2,737
EBITDA 이익률 (%)	23.9	16.2	22.4	25.0	26.6
증가율 (%)	-16.2	-34.7	58.8	24.3	19.4
영업이익	1,589	967	1,646	2,113	2,567
영업이익률 (%)	21.3	13.5	20.0	23.0	25.0
증가율 (%)	-18.1	-39.1	70.2	28.4	21.5
영업외손익	29	40	73	77	83
금융수익	128	131	113	118	124
금융비용	58	34	39	40	40
기타영업외손익	-41	-57	-1	-1	-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618	1,007	1,719	2,191	2,650
세전계속사업이익률	21.7	14.0	20.9	23.9	25.8
증가율 (%)	-20.9	-37.8	70.7	27.5	20.9
법인세비용	204	217	206	265	321
계속사업이익	1,414	790	1,513	1,926	2,32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414	790	1,513	1,926	2,328
당기순이익률 (%)	19.0	11.0	18.4	21.0	22.6
증가율 (%)	-33.2	-44.1	91.5	27.3	20.9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61	575	1,337	1,613	1,951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53	216	176	312	378
기타포괄이익	75	1,025	270	10	10
총포괄이익	1,489	1,815	1,783	1,936	2,338

(단위:십억원)

재무상태표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5,199	5,064	5,133	5,455	5,876
현금성자산	779	1,380	1,591	1,599	1,664
단기투자자산	1,933	1,324	1,520	1,695	1,897
매출채권	1,564	1,679	1,176	1,293	1,422
재고자산	70	51	58	65	73
기타유동자산	853	630	788	804	820
비유동자산	25,054	26,575	27,576	28,757	30,292
유형자산	1,525	1,546	1,747	1,727	1,712
무형자산	143	117	93	74	60
투자자산	21,821	23,241	24,065	25,285	26,850
기타비유동자산	1,565	1,671	1,671	1,671	1,670
기타금융업자산	0	0	0	0	0
자산총계	30,253	31,639	32,709	34,212	36,168
유동부채	1,937	2,245	2,300	2,326	2,392
단기차입금	3	6	6	6	6
매입채무	773	801	809	688	584
유동성장기부채	16	200	290	300	310
기타유동부채	1,145	1,238	1,195	1,332	1,492
비유동부채	1,299	1,262	1,046	1,055	1,085
사채	549	390	175	185	195
장기차입금	0	0	0	0	0
장기금융부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50	872	871	870	890
기타금융업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3,237	3,507	3,426	3,471	3,567
지배주주지분	26,128	27,084	28,058	29,203	30,686
자본금	802	802	802	802	802
자본잉여금	2,968	2,968	2,968	2,968	2,968
자본조정 등	-1,914	-2,065	-1,815	-1,815	-1,8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972	4,054	4,324	4,334	4,344
이익잉여금	21,301	21,325	21,780	22,915	24,388
비지배주주지분	888	1,049	1,225	1,538	1,915
자본총계	27,016	28,133	29,283	30,741	32,601

(단위:십억원)

현금흐름표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83	1,361	1,155	758	852
당기순이익	1,414	790	1,513	1,926	2,328
유형자산 상각비	155	164	174	160	155
무형자산 상각비	33	30	24	19	15
외환손익	-2	-24	0	0	0
운전자본의 감소(증가)	-295	134	299	-128	-81
기타	-422	267	-855	-1,219	-1,56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9	-66	-190	-295	-33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425	-461	-824	-1,219	-1,565
유형자산의 감소	5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11	-102	-105	-130	-130
기타	352	497	739	1,054	1,36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76	-706	-754	-455	-454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399	-159	-215	10	1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527	-550	-632	-478	-478
기타	-848	3	93	13	14
기타현금흐름	1	12	0	0	0
현금의증가(감소)	-272	601	211	7	65
기초현금	1,051	779	1,380	1,591	1,599
기말현금	779	1,380	1,591	1,599	1,664

(단위:원, 배, %)

주요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2027F
EPS(당기순이익 기준)	8,930	4,965	9,620	12,425	15,036
EPS(지배순이익 기준)	7,958	3,593	8,494	10,401	12,588
BPS(자본총계 기준)	168,513	175,475	186,241	195,511	207,342
BPS(지배지분 기준)	162,977	168,930	178,448	185,733	195,162
DPS	3,100	3,100	3,100	3,100	3,100
P/E(당기순이익 기준)	9.6	14.5	8.4	6.5	5.4
P/E(지배순이익 기준)	10.8	20.0	9.5	7.8	6.4
P/B(자본총계 기준)	0.5	0.4	0.4	0.4	0.4
P/B(지배지분 기준)	0.5	0.4	0.5	0.4	0.4
EV/EBITDA(Reported)	7.0	9.0	6.1	4.9	4.2
배당수익률	3.6	4.3	3.9	3.9	3.9
성장성 (%)					
EPS(당기순이익 기준)	-33.3	-44.4	93.8	29.2	21.0
EPS(지배순이익 기준)	-36.5	-54.8	136.4	22.4	21.0
수익성 (%)					
ROE(당기순이익 기준)	5.3	2.9	5.3	6.4	7.4
ROE(지배순이익 기준)	4.9	2.2	4.8	5.6	6.5
ROA	4.7	2.6	4.7	5.8	6.6
안정성 (%)					
부채비율	12.0	12.5	11.7	11.3	10.9
순차입금비율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이자보상배율	40.0	35.8	59.2	74.5	88.7

** K-IFRS 연결 기준*

10월 금통위 코멘트

올해는 아니어도 인하 사이클은 지속?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RA 조준우 jjw980803@hmsec.com

-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재차 동결(2.5%). 신성환 위원 8월에 이어 금리 인하 소수의견 제시
- 8월 금통위 이후에도 지속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환율 급등이 동결 결정의 배경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변화: 인하(5명→4명), 동결(1명→2명)
- 정책 일관성 고려해 11월에도 동결 예상. 인하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로 순연, 종착지는 2.25%

10월 금통위, 집값, 환율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 재차 동결

- 10월 금통위, 3회 연속 기준금리 2.5%로 동결,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 피력
-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흐름이 지속됐고, 대미 3,500억달러 투자 협상 문제 등으로 환율이 급등
- 반면,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락세와 수요측 압력 부재로 대체로 안정적이고, 경기는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나 아직 경기 경로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닌 상황
- 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는 10월 금통위에서도 동결 선택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 둬야 한다는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동결 유지해야 한다는 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

정책 일관성 고려할 때 11월에도 동결 예상, 올해는 2.5%에서 마무리,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량 급감이 예상되나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강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한은 금통위도 금융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과 한은 정책 조합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1월에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이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을 시사했으나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 감소 감안할 때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
- 경기 측면에서는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가 다소 보수적이므로 11월 경제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소지가 있음(1.7%~1.8%), 이는 11월 금리 인하 당위성을 낮추는 요인
- 이에 따라 당사는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

끝나지 않은 인하 사이클, 단기(1년 이내) 종착지는 2.25%

- 경기가 일부 개선세 보이고 있으나 회복 속도 빠르다고 보기 어려움, 건설투자 부진 심각하고, 부양책 효과 사라진 이후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상황
-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과 관세 충격도 시차 두고 부정적 영향력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에 대한 낙관은 어려운 환경. GDP갭률 마이너스 기조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인하 사이클 지속은 불가피
- 다만, 부동산과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을 정부와 한은이 지양하고 있고, 확장재정 기조와,

AI 투자 사이클로 인한 견조한 반도체 수출, 트럼프의 협상 방식 등 고려할 때 성장률 상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의 당위성이 크게 높아지는 환경은 아님

- 단기(1년 이내) 시점에서 기준금리 종착지는 2.25%로 예상하나 추가 인하 여부는 성장 경로에 좌우될 것(내년 성장률 2.0%에 가깝거나 이상이면 동결 기조 지속 될 소지)
- 한편, 금융여건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호조는 긍정적 요인이나 대출 공급 위축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관련 정책과 효과 지켜볼 필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변경사항

〈표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8월	2025년 10월
정책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 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높아졌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었다.**
향후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한은 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표 2〉 8 월 한은 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요약

Q. 금통위원들의 3 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내용은?

A. 소수 의견을 낸 위원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빠른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다수 위원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동결 의견을 냄. 3 개월 내 전망은 인하 4 명, 동결 2 명으로 이전(5:1)보다 동결 의견이 늘었음.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금융안정 우려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판단임. 모든 전망은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이번 동결이 부동산 안정에 미칠 영향과 11 월 금통위 전망은?

A. 이번 동결은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더라도 속도와 폭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금리를 인하했다면 오히려 투자비용 감소로 부동산 과열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음. 11 월 회의는 관세 협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변수들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Q.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데, 인하 속도나 폭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타당한가?

A. 지난 회의에서 5 대 1 이던 인하 대 동결 의견이 이번엔 4 대 2 로 바뀌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결과임.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11 월이나 4 분기 인하 여부는 관세 협상 등 불확실 요인이 많아 단정하기 어려움

Q.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한 금융안정 조건은 무엇인가?

A. 가계부채 위험은 정책 효과로 완화됐으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보고 있음. 금리 결정은 경기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집값 하락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성장세가 일정 부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될 때 인하 여건이 성숙할 것으로 보임

Q.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나?

A.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유가 하락(연초 대비 약 -18%)과 낮은 성장률로 인한 수요 부진 덕분에 제한적임.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밑돌고 있어 수요 압력이 약함. 환율이 오르더라도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봄

Q.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 현상을 어떻게 보나? 버블 우려는 없나?

A.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에 가까우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아님. 다만 과거 축적된 유동성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며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부동산은 소득 및 사회적 안정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주가는 국제비교상 과열은 아니나, AI 관련 섹터는 글로벌 버블 논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Q.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과거 계량 분석상 기준금리 100bp 인하 시 성장률은 약 0.24%p 상승함. 이번 인하 사이클은 기간이 짧아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이르며,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산가격 상승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Q. 관세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정책 상충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평가는?

A. 무역 및 부동산 리스크가 맞물리며 금융·성장 간 상충이 심화되는 상황임. 9 월 들어 여건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정책 방향은 관세 협상과 부동산 시장 흐름 등 불확실 요인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임

Q.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시계 확장 검토 여부는?

A. 개별 위원 의견은 모두 경제 조건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 발언 변화는 혼선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임. 1 년 단위 전망 실험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시장이 혼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시점이 되어야 본격 추진 가능함

Q.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후에도 환율이 1,400 원 아래로 안정될 수 있을까?

A. 해외 증권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자금 유출 속도가 빠름.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다만 3,500 억 달러 대미 투자의 재원 조달과 시점 등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Q.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단기 과제와 주요 관전 포인트는?

A.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두지 않고 변동성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근 환율 변동은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 흐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대외투자 속도 조절이 핵심 변수임

Q. 국감에서 언급한 '시장 충격 없이 연 200 억 달러 조달 가능'의 의미는?

A. 150~200 억 달러 수준은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자연 유입분을 활용할 경우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달 가능한 규모임. 해당 범위 내 조달은 시장금리나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

Q. 과거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 중 장기간 동결이 이어져도 인하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나?

A. 인하 사이클의 기간은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은은 1 년 단위의 장기 시계보다 짧은 기간의 경기 상황을 보며 대응하고 있음. 일시적 동결이 있더라도 인하 기조는 경기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음

Q. 최근 환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A. 8 월 28 일 이후 약 한 달간 환율이 30~35 원 상승했으며, 이 중 약 1/3 은 달러 강세 영향, 나머지 2/3 는 지역적 요인에 따른 원화 약세로 판단됨. 특히 미 · 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일본의 확장적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그리고 한국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3,500 억 달러 대미 투자 조달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환율 절하는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큼

Q. 향후 부동산 시장 및 관세 협상 전망, 금리 결정 시 고려 요인은?

A.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세로 유도할 필요 있음. 공급 확대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등 정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점진적 안정 가능성이 있음. 관세 협상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결과에 따라 대외 리스크가 완화될 여지도 있음. 금리 결정 시에는 물가를 최우선으로 보되, 금융안정 · 경제성장 ·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임

Q. 부동산 가격 안정 판단 기준과 통화정책의 역할은?

A. 한국은행이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오해임. 부동산 가격은 금리 외에도 사회적 ·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물가처럼 통제 가능한 목표치(예: 2%)가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게팅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경기와 부동산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가격이 높더라도 경기 둔화가 심하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수 있음. 결국 통화정책은 부동산을 조정하기보다는, 금리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것이 핵심임

Q. 향후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은?

A.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동시에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중요함.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인하 사이클이 언제 종료될 지는 경기 상황과 시장 반응을 더 지켜봐야 판단 가능함

Q. 부동산 통계 발표 중단 논의에 대한 견해는?

A. 통계 발표를 중단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님. 현재 민간에서도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공표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거래량이 적어 혼선이 생길 수는 있으나, 오히려 다양한 유형(비(非)아파트 · 주거비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유용함. 현재 주택 가격이 자산가치처럼 취급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통계만으로는 실질 주거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데이터 발표를 막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Q. 자산 가격 상승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A.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은 자산 종류에 따라 상반됨. 주가 상승 등은 생산성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 심화와 전 · 월세 부담 증가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함. 주택이 투자자산화되며 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함. 전세제도 개편, 월세 세제 지원 등 고통 분담형 정책이 병행돼야 함

Q. 내년 성장률이 IMF 전망(1.8%)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인하 기조가 약화되는가?

A. 단순 성장률 수치만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음. 정책 판단의 기준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대비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아웃풋 갭'임. 과거 성장 부진으로 갭이 여전히 큰 상황이며, 잠재 수준에 복귀하려면 일정 기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필요함. 따라서 내년 성장률이 1.6~1.8%로 높아지더라도,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상태인 한 완화적 기조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음

Q. 관세 협상에서 제시된 '250 억 달러 8 년 분납'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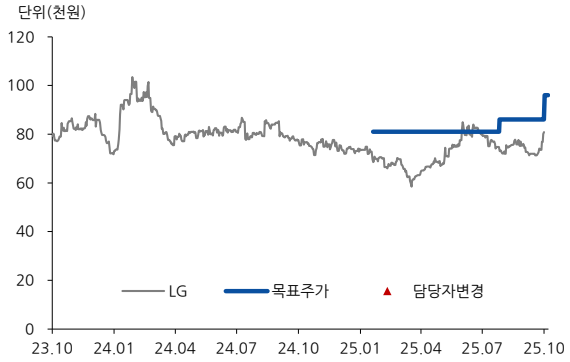
A. 협상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집행 내용도 불확실함. 일본 사례에서도 법적 구속력과 실행 방식이 달랐던 만큼, 이번 합의도 실제 이행 수준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함.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환율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협상단이 귀국 후 구체적 합의 내용이 확정된 뒤 평가할 예정임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5.02.11	BUY	81,000	-11.55	4.81
2025.08.11	AFTER 6M	81,000	-8.07	-7.78
2025.08.18	BUY	86,000	-13.21	-6.05
2025.10.24	BUY	96,000		

▶ 최근 2년간 LG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김한이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4.10.01~2025.09.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42건	89.3%
보유	17건	10.7%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